농약 대신 옻물을 쓰는 아빠

최 동 민

작년에 통영'옻칠공예미술관'에 갔다.

열시 반에 학예사 선생님이 옻칠공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 옻은 세균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칠을 하면 색깔도 좋고 또 만지면 감촉도 좋고 오래 보관하는 데는 최고라고 하셨다.

2,500여 년 전의 그림을 지금까지 보관하는 것은 옻칠을 해서라고 하셨다.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물어보셨다.

"오늘 어디 가서 뭐 봤노?"

"아빠, 옻나무가 진짜 훌륭한 일을 한 데요. 우리 집에도 옻나무 키우지요?"

"그래, 아빠가 손님 오시면 옻닭 해드리려고 밭에 몇 그루 심었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 농약대신 옻물을 뿌리면 진딧물과 세균들이 안 생긴데요. 그리고 개울물과 지하수도 오염이 안 되니까 우리도 해보면 어때요? 농약을 안 쓰면 좋은데 고추가 병든다고 아빠가 걱정하잖아요."

"오호~~역시 우리 동민이는 아빠의 농사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아빠는 인터넷으로 옻에 대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뒷산에서 옻나무 가지를 베어오셨다. 아직 옻으로 진액을 내는 것은 어려우니까 먼저 가지를 삶아서 그 물을 고추밭에 뿌리기로 했다. 고추가 아직 어려서 조금만 뿌렸다.

"이건 실험용인데, 우리 동민이 의견이 맞으면 아빠 뒤를 이어 진짜 농부가 될 자격을 인정하마."

고추밭에 옻물을 뿌리고 나니, 진짜 진딧물과 해충이 죽었다고 아빠가 좋아하셨다. 나도 밭에 가서 보았다. 분명히 까맣게 달라붙던 진딧물이 모두 떨어지고 없었다.

"아빠, 옻물이 농약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구나. 자연에서 얻은 천연재료니까 흙에도 좋고, 식물에게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땅 속 지하수도 오염 안 되고, 돈도 안 들고, 일석 몇 조냐?"

"완전 무공해니까 1석 10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올해부터 옻물을 농약 대신 쓴다.

저번에 학예사 선생님은 옻칠은 너무 비싸고 고급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없고 금가루보다 귀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동네 뒷산에는 옻나무가 많아서 가지를 베어오면 된다. 나무 둥치는 키워서 더 많은 가지를 뻗어가도록 놔두어야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아빠는 농사일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신다.

“농사는 과학이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아빠 농장을 이어받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 옻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옻물을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많은 농부님들께 알려드리면 진짜 좋아 하실 거다.

땅과 식물과 사람에게 모두모두 좋은 옻나무는 농부에게는 진짜 보배가 될 거다.

우리 동네에는 개울이 있는데 윗동네에 집이 두 채 생기고 나서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 생활하수가 개울을 더럽히는 것이다.

비가 오고 나서 가면 물이 깨끗한데 며칠 지나면 이끼가 생기고 먼지 덩어리들이 떠다닌다.

엄마는 개울에서 빨래하기가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나는 물놀이를 못한다고 했더니 아빠가 참나무숯을 한 자루 담아서 개울의 깊은 곳에 넣어주셨다. 이 숯은 숯가마에서 구해온 것이다.

아빠는 숯이 물의 오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생활하수를 잘 처리하여야만 된다고 걱정하신다.

나는 옻나무를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를 연구하고 싶다. 아빠는 내가 대학생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우리 동네 개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알면 다른 동네 개울도 깨끗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